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74-2호)

여론속의
여輿論論

기획: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

2020. 04. 22.

담당자 이혜민 부장

전화 | 02-3014-1052

e-mail | hmlee@hrc.co.kr

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조사실무

오승호 부장

전화 | 02-3014-0167
e-mail | shoh@hrc.co.kr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구정태 대리

전화 | 02-3014-1040
e-mail | jtkoo@hrc.co.kr

1

기획조사 :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현황과 행태

- 외신들은 한국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라고 칭찬한다.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우리 모습은 가지각색이다. 주말에 다녀온 백화점에 사람이 별로 없어 오히려 안전한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, 한 달이 넘도록 두문불출하며 도시락만 먹었다는 사람도 있다.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일까.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.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리서치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,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현황과 행태를 확인해 보았다.
- 대인관계별로 보면 비동거 가족의 만남이나 업무상 직장 동료로 만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응답이 많았다. 하지만 친구·지인이나 친척 간 교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. 행위 유형별로는 직장·영업장, 동네 마트·편의점 외에는 모두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.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은 실제 개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졌는데, 지인과의 모임이나 회식, 타 지역 거주 가족 방문 및 맞이, 종교모임, 경조사, 나들이·국내여행·해외여행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낮아, 시민들 스스로 철저히 자제하는 모습인 것으로 조사됐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3월 14일~30일 13개 장소별 방문 여부를 점수화하여 3개 집단으로 구분해 확인한 결과,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집단은 44%, 중간 집단은 40%, 잘 안 지키는 집단은 16%로 집계됐다.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응답자는 여자(51%), 60세 이상(51%)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.
-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전 국민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강한 사회적 비난이 정당하다고 보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.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비난할 수 있다는 의견에도 80%가 동의했다.

1

일상생활은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, 비일상 생활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

“친구나 지인 안 만난다” 61%

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.

대인관계별로 보면 친구·지인(61%), 친인척(58%)과는 응답자 과반 이상이 “만나면 안 된다”고 답했다. 그에 비해 따로 사는 가족(42%)이나 직장동료 등 업무적 관계(39%)에서는 만나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. 비동거 가족의 만남이나 업무상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지만 친구·지인이나 친척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.

(단위 : %)

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친구 및 지인과의 만남 자제해야 한다 61%



질문: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과의 만남(모임)을 얼마나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비고: 5점 척도로 1점은 “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”, 5점은 “상황에 따라 만날 수도 있다”임.

그래프에는 1점과 2점을 합산하여 ‘만나서는 안 된다’로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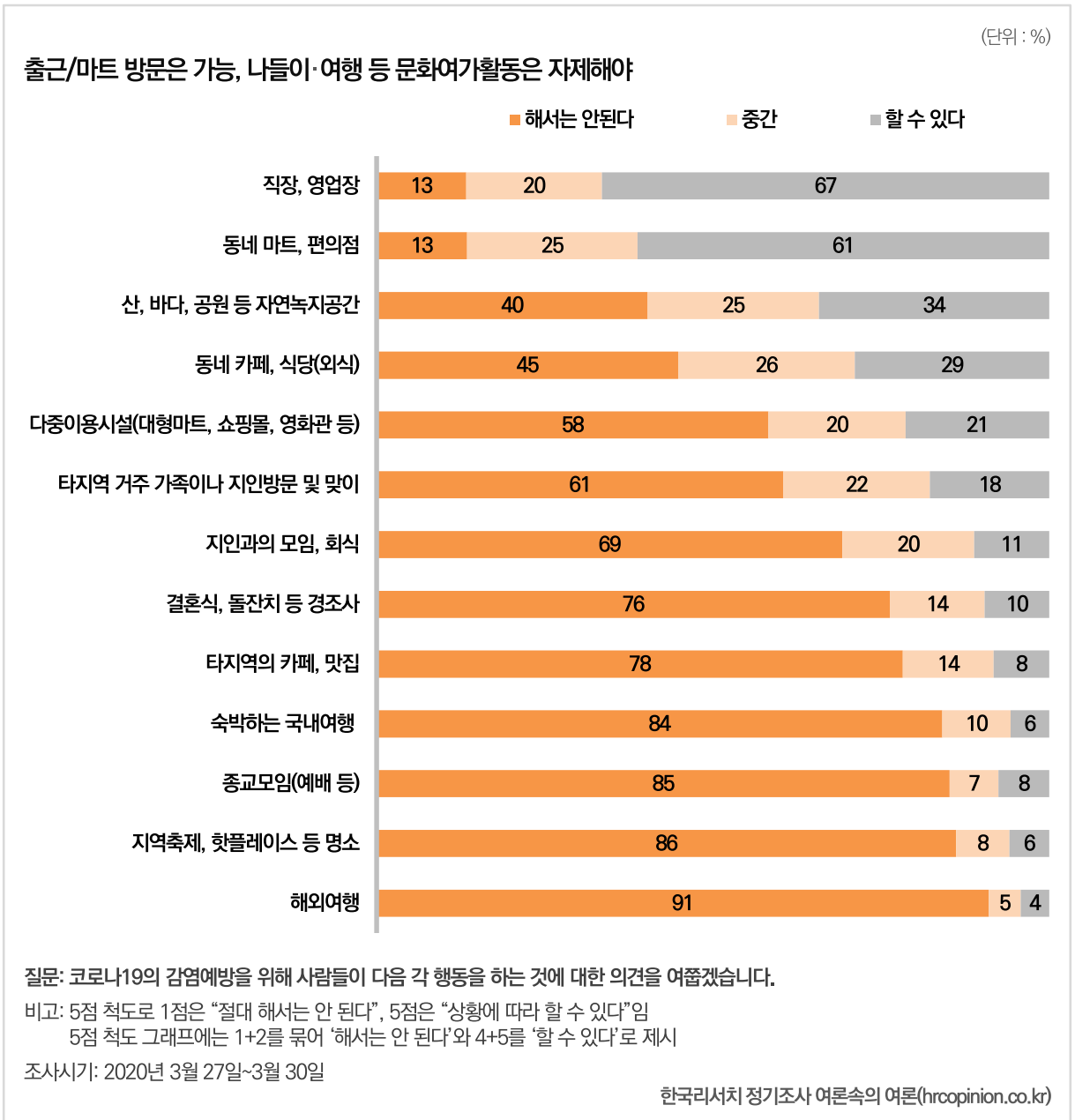
조사시기: 2020년 3월 27일~3월 30일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1

일상생활은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, 비일상 생활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

행위 차원에서 보면 직장·영업장은 67%가, 동네 마트·편의점은 61%가 방문할 수 있다고 답했다. 그 밖에는 모두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. 특히 지역 축제, 여행, 종교모임 등 문화·여가활동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. 그러나 다중이용시설, 동네 카페 및 음식점, 산·바다·공원 등 자연녹지공간은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각각 58%, 45%, 40%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 우리 삶을 더 즐겁고 편리하게 하는 것들 중에선 일상과 비일상생활을 구분해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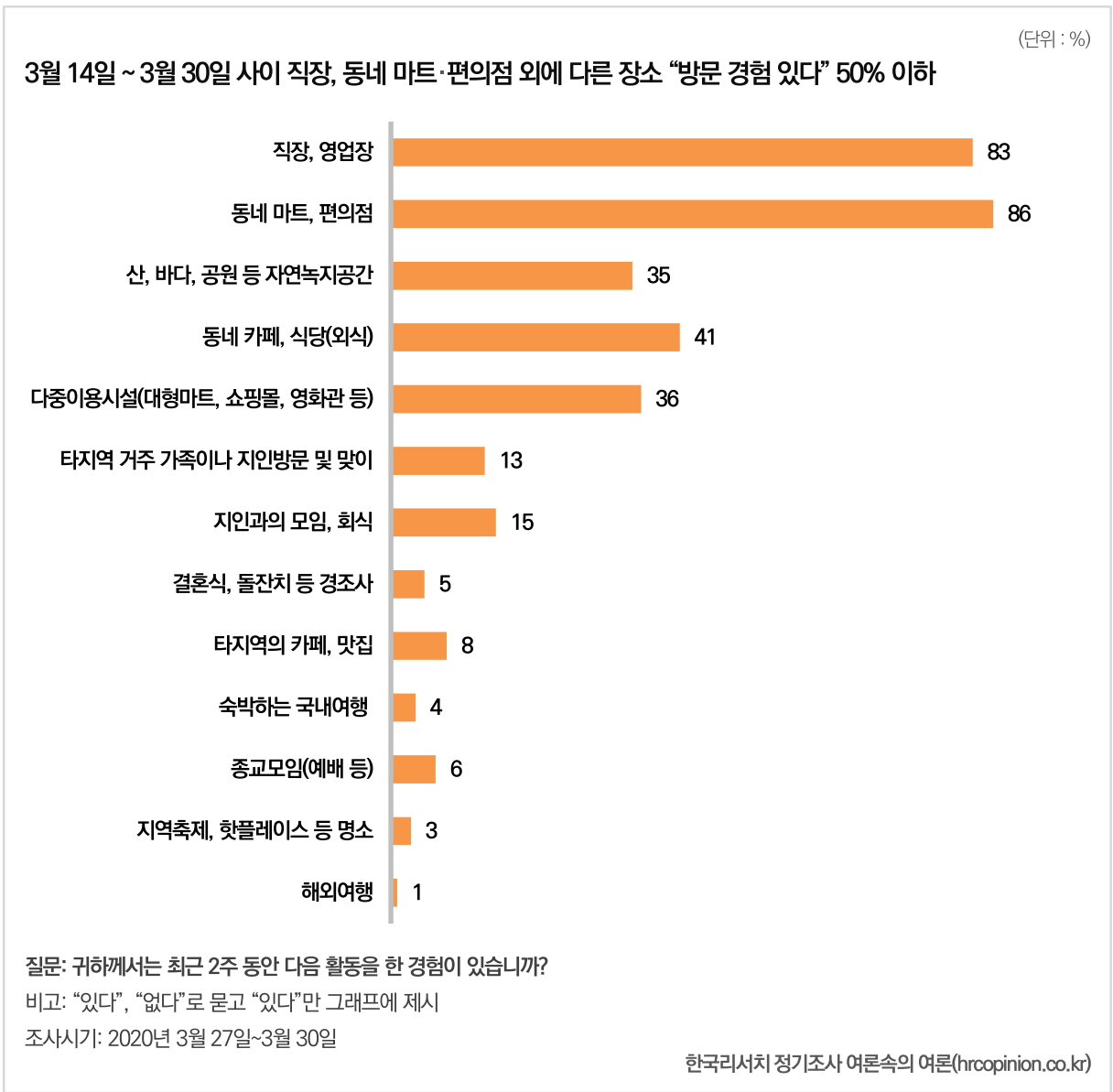


1

일상생활은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, 비일상 생활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

직장, 동네 마트·편의점 외 다른 장소는 잘 안가

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은 실제 개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졌다. 응답자의 86%가 3월 14일~30일 동네 마트나 편의점을, 83%는 직장이나 영업장을 다녀왔다고 답했다. 동네 카페 및 음식점, 대형마트·쇼핑몰·백화점·영화관·게임방 등 다중이용시설, 산·바다·공원 등 자연녹지공간은 10명 중 4명만 방문했다고 답했다. 지인과의 모임이나 회식(15%), 타 지역 거주 가족 방문 및 맞이(13%), 종교모임(6%), 경조사(5%), 나들이·국내여행·해외여행(7%)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더 낮아, 시민들 스스로 철저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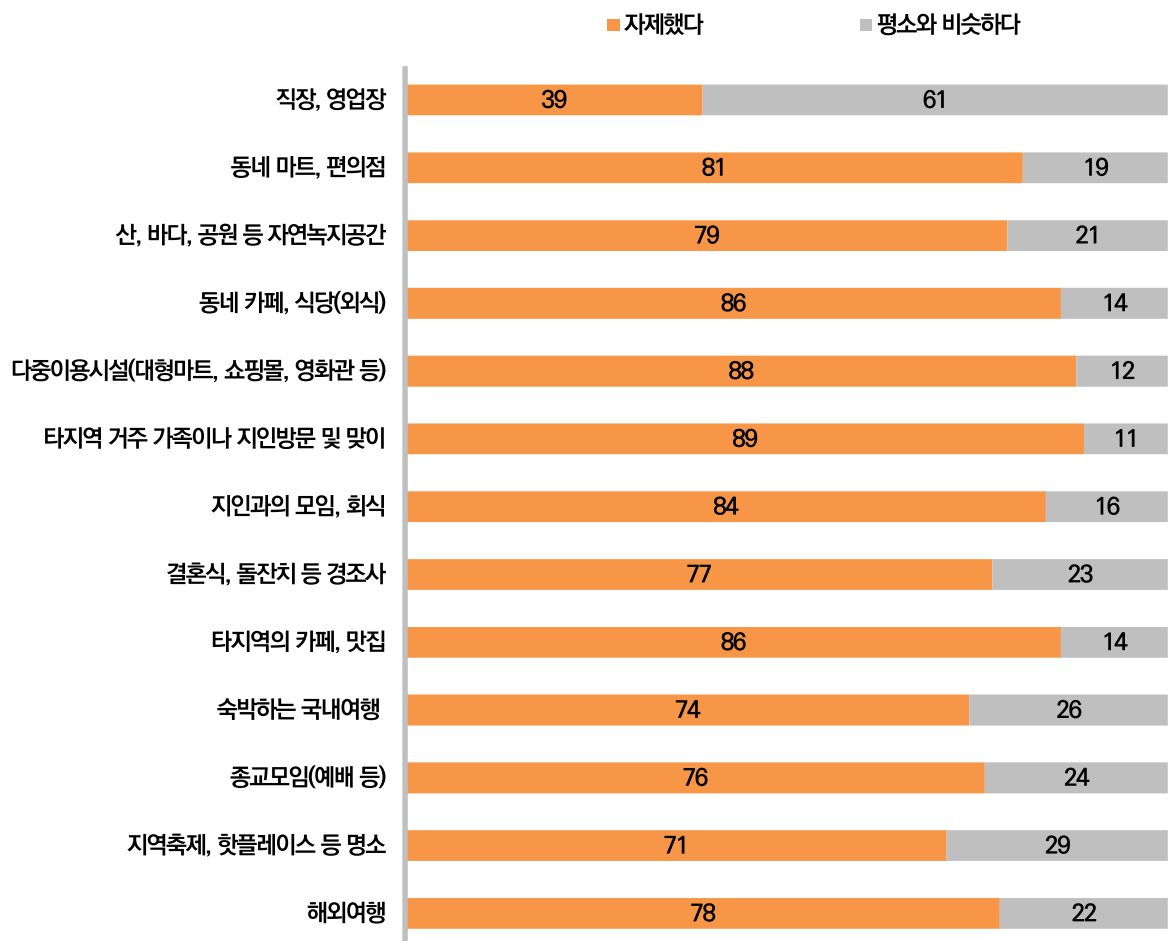
1

일상생활은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, 비일상 생활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

방문 경험이 10% 이상인 장소에 대해 평소보다 방문을 얼마나 자제했는지 물었다. 직장 및 영업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평소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61%에 달했지만, 나머지 장소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제했다고 답했다. 주목할 점은 동네 마트·편의점을 가는 것을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실제 방문 비율은 높다는 사실이다. 생필품과 식재료 구입 등 당장의 생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방문 횟수는 줄여도 방문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탓으로 보인다.

(단위 : %)

직장 외, 평소보다 방문 자제했다는 응답 80% 이상



질문: 귀하께서는 해당 활동을 평소보다 자제한 편입니까? 비슷합니까
 비교: 자제했다는 응답(①평소 보다 많이 + ②평소보다 조금)을 합쳐서 제시
 사례수: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응답자만 응답하는 문항임
 조사시기: 2020년 3월 27일~3월 3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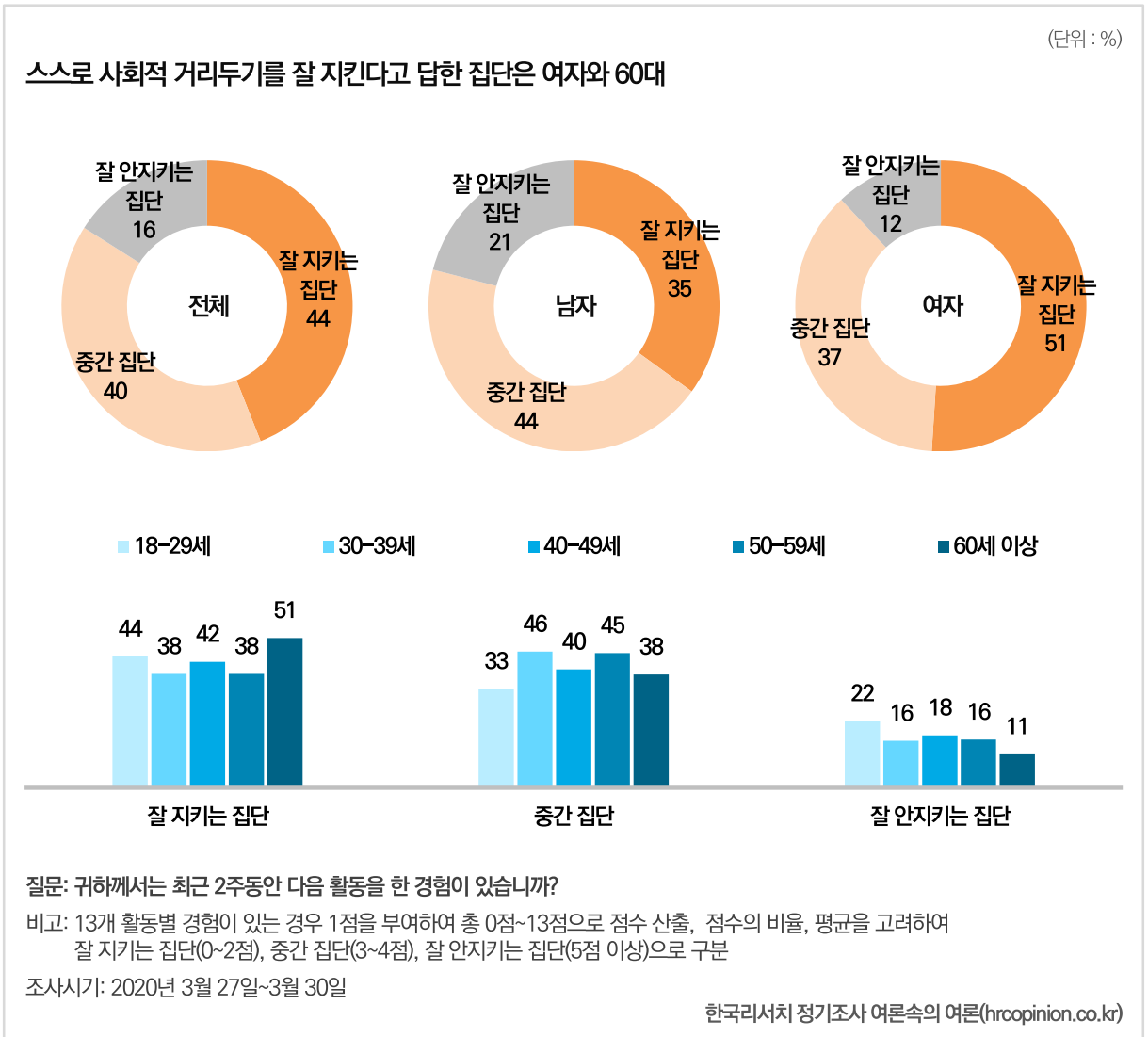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2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평가

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집단은 여자, 60대

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3월 14일~30일 13개 장소별 방문 여부를 점수화해 3개 집단으로 구분했다.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집단(13개 중 2개 이하 방문)은 44%, 중간 집단(3,4개 방문)은 40%, 잘 안 지키는 집단(5개 이상 방문)은 16%로 집계됐다.

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응답자는 여자(51%), 60세 이상(51%)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. 이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안 지키는 응답자는 남자(21%)가 여자(12%)보다, 20대(22.4%)가 60대(11%)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다만, 20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집단과 잘 안 지키는 집단으로 양분되는 모습도 나타났다. 30대와 50대는 중간집단으로 수렴했다.

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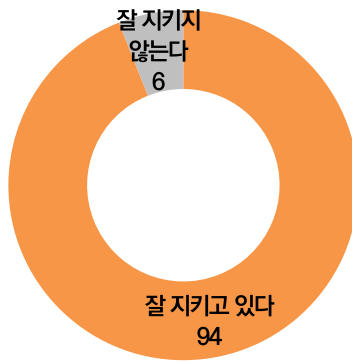
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평가

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지만... 우리나라 국민은 글썸?”

사회적 거리두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미묘했다. 모든 연령에서 본인은 잘 지키고 있다는 답변(94%)이 압도적이다.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을 평가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. “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다”고 답변한 비율은 61%에 그쳤다. 심지어 20~30대에선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.

(단위 : %)

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다 94%



질문: 귀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비고: 4점 척도(①매우 잘 지키고 있다, ②잘 지키는 편이다, ③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, ④전혀 지키지 않는다)임

조사시기: 2020년 3월 27일~3월 30일

20~30대 응답자 과반, “우리나라 국민들, 사회적 거리두기 잘 안 지킨다”



질문: 귀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와 내 주변에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비고: 4점 척도임(①매우 잘 지키고 있다 + ②잘 지키는 편이다만 제시).

조사시기: 2020년 3월 27일~3월 30일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2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평가

정부의 강력한 통제 필요 70%, 지키지 않을 경우 비난 가능 8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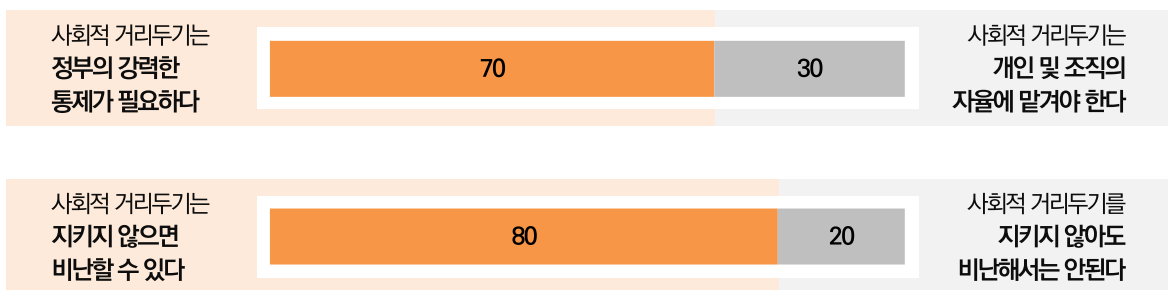
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전 국민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강한 사회적 비난이 정당하다고 보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.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비난할 수 있다는 의견에도 80%가 동의했다.

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집단일수록 더 강력한 통제(76%)를 원했다. 반면 잘 안 지키는 집단은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이 51%로 낮아졌다. 비난 여부에서도 비슷했다. 실천을 잘하는 집단일수록 비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.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실천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16%, 실천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38%로 집계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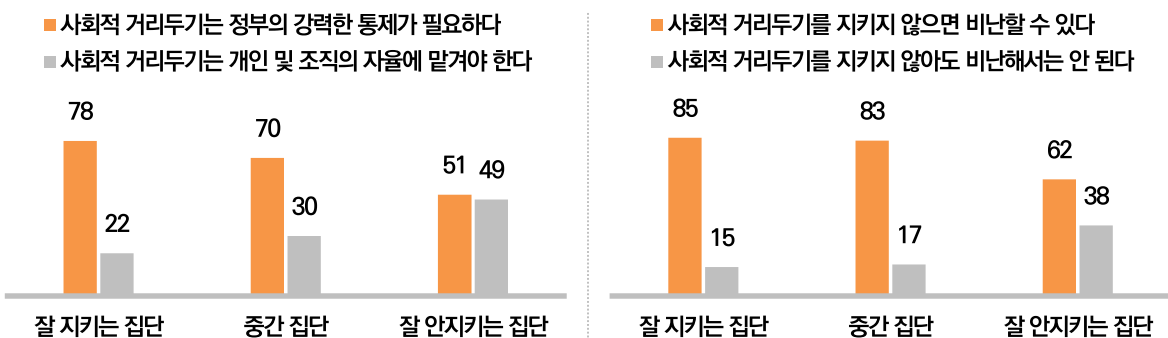
정부의 강력한 권고도 있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건 국민 개개인이다. 본인도 불편함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,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.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, 나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점차 줄여줄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.

(단위 : %)

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통제,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 응답 높아



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킨다고 평가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필요하다는 의견, 지키지 않는 사람 비난할 수 있다는 의견 높아



질문: 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?

조사시기: 2020년 3월 27일 ~ 3월 30일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구분	내용
모집단	•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
표집틀	•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19년 12월 기준 약 46만명)
표집방법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• 1,000명
표본오차	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p$
조사방법	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 (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• 조사요청 7,127명, 조사참여 1,288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4.0%, 참여대비 77.6%)
조사일시	• 2020년 3월 27일 ~ 30일
조사기관	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
여輿論論

40
YEARS

Hankook Research

